2022121117 경제학과 이윤민 자문자답 셀프 인터뷰

1. 내가 인지하는 내 성격은 무엇이며, 그게 달랐던 적이 있었는가?

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끝판왕이다. 어떤 일을 잘 해 내고 싶고,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한다.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, 완벽에 가깝게 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. 이 일을 하는 데에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, 그리고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,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.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나의 문제 해결 과정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, 스트레스를 받으며, 기한이 있는 과제의 경우 완성도가 낮은 상태로 제출하기도 한다.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, (시간을 무시하면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결과이니)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. 시간에 쫓겨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상상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. ‘저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 또?’, ‘나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데 자꾸 잠식되네’, ‘이거 진짜 어떡하지?’ 이런 종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. 때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. 하나 다행인 점은,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며, 고쳐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이다. 그런데 딱 한 번, 내가 달랐던 적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이다.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짜여진 시간 안에서 움직였다. 정해진 시간에 전날 미리 세워 놓은 계획을 지키는, 조금씩 실력이 늘어 가는 나를 보며 뿌듯했다. 왜 이때만 달랐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,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.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에 그곳이 요구하는 성적에 도달하기 끊임없이 노력했다. 그렇다면 또 다행인 점을 하나 찾은 것 같다.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다시 진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지만 그만큼 간절한 일이 아니어도,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세미 완벽주의자가 되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다루어야겠다.

2. 나의 SNS를 보면 드는 생각은? 내가 추구하는 SNS 스타일은?

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여느 사람들의 SNS가 그렇듯 행복한 순간과 재미있는 순간만 모여 있는 집합체라는 생각이 든다. 제주도 여행, 친한 언니와 만나서 논 것, 가족여행의 순간들, 데이트 등 내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만 올려 두었다. 사실,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. 의도적으로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순간들로 채워 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에 정말 행복감을 느껴서, ‘아 나 이거 기록해 둬야지!’라는 이유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. 또, 나는 힘든 일이나 짜증나는 일을 주변 이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다. 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이들에게 전가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더더욱 감정적인 일들이나 짜증유발 사건 등은 올리지 않게 되는 것 같다. 그런데 때때로 나의 이런 SNS스타일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다. 오래 만나지 못한 친한 친구들이 나의 피상적인 생활만 알게 되니 진짜 얼굴을 마주했을 때 깊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진다. 또, 행복한 순간 중 더 행복한 순간을 고를 때 에너지 낭비가 생각보다 크다. 더 잘 나온 사진, 더 예쁘게 나온 사진 등에 집착하기도 한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다.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아는 사람들도 있다. 이런 점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.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랑만 공유하는 비공개 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다. 정말 친한 이들만 이 계정을 볼 수 있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또, 더 예쁜 사진을 고르려는 수고로운 노력 없이 B컷도 그냥 올릴 수 있는 계정이 될 것이다. 인스타그램의 순기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다.

3. 나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? 생각만 해도 좋은 그 한 가지가 왜 유독 나에게 특별하고 애틋한가?

 나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는, 그때 그 시절 듣던 노래이다. 주군의 태양 OST였던 Touch Love,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아이돌인 인피니트의 수록곡들. 2NE1, 씨스타, 포미닛 등 그때 그 시절 여자아이돌 타이틀곡. 중2 점심시간 때 TV 화면과 연결해 틀었던 냉탕에 상어. 한창 인디에 빠졌던 고2, 고3 시절 듣던 설, 다섯, 데이먼스이어 그리고 예빛님의 노래. 남자친구와 서로 추천해 줬던 노래들. 그때 그 시절 듣던 노래는 노래를 듣던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너무나도 특별하다. 마치 음악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내 추억도 함께 펼쳐지는 느낌이다. 그때 느꼈던 감정들도 함께 밀려온다. ‘아 고3 때 이 노래가 공허함과 외로움을 덜어내 주는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.’ 이런 식으로. 노래의 이 특별함 때문에 토토가 같은 음악프로그램이 대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? 아, 그리고 혼자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물론 좋지만 다른 이들과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때면 기쁨이 배가 된다. ‘어? 이거 우리 그때 들었던 거잖아! 우리 그때는 이랬는데!’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추억을 기억 저편에서 꺼낼 때 너무 즐겁다. ‘이거 그때 코노에서 불러줬던 거잖아. 너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집가서 바로 찾아서 들었어!!’ 이런 식으로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서 추억을 발견할 때도 있다. 이래서 그때 그 시절 듣던 노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. 내 시간을 가득 담고 있는 타임머신 같은 존재이니까!